

광주~인천공항 특별기 띠운다



U대회 실사단 “접근성 취약하다” 지적따라

박 시장 “실사 성공적… 감동준 시민에 감사”

광주시는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광주 유치를 위해 대회 개최 기간을 전후해 인천공항~ 광주공항간 특별기를 운행하고 재정 및 숙박문제를 보완하는 등 실사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박태광 광주시장은 6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5일 진행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 방문결과와 향후 대책을 브리핑했다.

박 시장은 “유럽과 아프리카 선수

단이 광주까지 오는데 시간과 항공료가 많이 들고 인천공항에 입국, 다시 김포공항으로 이동해 광주공항으로 와야 하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천에서 직접 광주로 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후원회장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도 실사단 환영 오찬에서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이번 실사는 실사단 스스로 ‘광주는 지금 U대회를 치러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할 만큼 성

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대회 유치를 위해 뜨거운 열정과 환호로 실사단을 감동시킨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실사 과정에서 남녀노소 모두 하나가 돼 위대한 광주 정신을 보여줬다. 대회 유치가 되면 1등 공신은 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이제 남은 것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27명의 집행위원 가운데 절반(18명)에 육박하는 유럽의 표심을 잡는 것”이라며 “오는 31

일 총회에서 실시될 최종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부동표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 집행위원들이 특정 대륙에 ‘물표’를 주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 결국 자리적 위치보다는 어느 도시가 더 적합적이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주최할 여건이 되는지가 관건”이라며 전반적인 인프라에서 러시아 카잔과 스페인 비고에 비해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광주의 승리를 자신했다.

한편 박 시장은 7일 서울에서 유치위 고위 관계자들과 전략 점검회의를 갖고, 8~15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3개국을 잇따라 방문, 막바지 유치활동을 벌였다.

/정호식기자 who@kwangju.co.kr

미국산이 호주산으로 둔갑 우려도

1면 ‘美 쇠고기’서 계속

또한 일반 식육점과 마트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쇠고기도 유통과정에서 한우로 둔갑해 소비자들은 이를 부정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일반 식육점 등에서도 유통업체에서 한우라고 속여 공급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믿고 팔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끊도록 규제하

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한우협회 한 관계자는 “음식점뿐 아니라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고,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수입산과 한우를 식별하고 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바다의 전봇대’ 안 뽑힌다

‘연안발전특별법’ 국립공원내 숙박시설 불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에 관광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규정이 전혀 없어 전남도의 설 개발 등 도내 해상관광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연안권 개발·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각종 법률상 규제에 대해 조정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때문에 연안권인 전남도와 경남도 등은 지금까지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했던 해상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 사업 추진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규제에 대해 해당 시·도의 의견을 일부 수렴했을 때도 불구하고 해상국립공원 내 설치

가능 시설 종류에 숙박시설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법에 숙박시설을 반영해 설 개발 및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전남도의 기대가 무산됐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선착장 부지 면적을 300㎡이하에서 3천㎡ 이하로, 전망대 부지 면적을 200㎡이하에서 1천㎡이하로 완화하는 등 전남·경남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

하지만 총수 3층 이하, 30만㎡이하의 숙박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은 과정개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남·경남도는 현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토대로 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건립을 가능토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심신고로 정밀 검사를 벌였던 마지막 2건이 6일 일반 질병으로 밝혀진데다 지난 달 28일 이후 AI 의심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지 않은데 따라 AI 사태가 사실상 진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울산 AI 능장과 역학관계에 있

는 순천 지역 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양성일 가능성은 낮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AI 사실상 소멸

지난달 28일 이후 신고없어

전남 지역의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남도는 집단 폐사에 따른 AI 의

미 워싱턴에 서재필 선생 동상

주미 대사관 앞

오늘 제막식

송재 서재필 선생의 동상이 미국 워싱턴 주미 대사관 앞에 세워진다.

6일 (사)송재서재필기념사업회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이태식 주미대사와 김중재 서재필기념사업회 이사장, 재미교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재필 선생 동상 제막식이 열린다.

주미 대사관 앞에 세워진 동상은 서재필 선생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는 보성군 서재필기념공원 내 동상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다.

이 동상은 워싱턴 시내에 있는 유일한 한국인 동상으로 미국 내 동포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한편 한인 2·3세들의 역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한말 개혁가인 서재필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했으며, 국내 최초의 미국 등록 의사로 국가서훈 1급 독립유공자로 추정받고 있다.

서재필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서재필 선생은 83세의 나이 중 60년을 미국에서 망명 생활했으며 독립운동의 주 무대도 미국이었



보성군 문덕면 서재필기념공원의 서재필 선생 동상. 미국 워싱턴에 세워지는 서재필 선생 동상은 이 동상과 같은 모양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다”면서 “주미대사관과 재미교포들이 마음을 모아 동상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 서재필기념공원은 6월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170명·전남도 840명 연내 감축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안 확정

광주시와 전남도가 경제 관련 부서 확대와 행정 지원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통해 각각 170명과 840명의 정원을 줄일 방침이다.

6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최근 일선 시·군·구 인사 담당자 회의를 갖고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도·시군·정원 감축계획’을 협의했다.

광주시는 현 정원 2천114명 가운데 2.4%인 51명을 감축키로 잠정 결정했다. 구별 감축인원은 동구 27명(4.3%), 서구 15명(2.1%), 남구 44명(6.2%), 북구 33명(3.4%) 등 모두 119명이다. 광산구는 현 정원 771명으로 정부가 감축기준으로 제시한

명(6.4%), 장성군 24명(4.1%), 완도군 35명(5.2%), 진도군 42명(7.8%), 신안군 56명(7.4%) 등이다.

전남도와 각 시·군은 이를 토대로 6월 말까지 정원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한 뒤, 12월 말까지 인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도는 자연감원을 통해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위적인 강제 퇴출이 단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문화 관련 부서를 보강했기 때문에 큰틀의 조직개편을 고려치 않고 있으며, 정원 20명에 미달하는 13개 소과에 대한 통폐합, 기능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상속한정승인공고

발·최장선(240309-1552114) 삼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세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재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재)에 관한 민본 제1032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유통으로부터 2개월내에 체권 또는 수령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협상으로 청탁된다.

기간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 5. 18. 83

공고인: 김점순, 최영선, 최영주, 최영아, 최서윤, 최현경, 최현숙
한정승인수리일: 2008. 4. 14
공고기간: 2008. 5. 7~2008. 7. 6
연락처: 광주광역시 북구 오정동 주공 아파트 202-304
최재영(010-5028-9996)

주유소매매

화순읍내 국도변 30m×10m 코너
대지 1,180㎡ 건물 47㎡(케노포호 2층)
탱크 1800ℓ/㎥ 4기, 주유기 5기
매가 11억5천만원(용지+의전포함) 조정가
011-413-6051(주·야)

PERI-Korea 호남지역 영업사무소장 모집

당사는 토목 및 건축 시공을 시스템 거주점 전문업체로서 지난 39년 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세계 거주점 업계의 신도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PERI GmbH가 100% 투자한 한국 현지법인으로, 현재 세계 53개국의 PERI 지사에서 약 4,000여 명의 일·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PERI Korea는 유수한 국내 건설 현장에 선진화된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한국 시장에 지속적인 투자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하기의 자격 조건을 갖춘 분으로서 호남지역 영업사무소를 책임지고 운영하실 분을 모집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

- 광주, 호남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
(호남 출신으로 호남지역에 background를 가지고 있는 자)
- 전문대출 이상자로 건축, 토목 혹은 기계공학과 전공자
- 45세 미만자
- open-minded, 공격적인 영업 마인드 소유자
- 기술 임업 유경험자 우대

제출서류 및 기한

국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사진 부착)
2008년 5월 16일

PERI 유한회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0-67 유성빌딩 8층
전화번호: (02)550-2200 팩스: (02)557-5382
담당: 조해경 이사

E-mail: info@perikorea.com Homepage: www.perikorea.com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부문)에 열정을 함께할 분을 모십니다.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구 분	분 야	인원	지 원 자 격
경영 지원 부문	전기기획, 홍보, 제무회계, 경영·구매부문, 경영입주지원	0 0	- 중 역 급(급자급) - 팀 전 급 : 기·부문 5년 이상 유 경력자 - 경영입주지원
발전소 건설 및 기술부문 (제조·건설)	전기·제어, 기계, 학과, 토목, 건축, 전산	0 0	- 중 역 급(급자급) - 팀 전·장 : 기·부문 5년 이상 유 경력자 ※ 해상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제조·건설부문은 제조·건설부문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된다.
마케팅 부문	국내 및 국제	0	- 중 역 급 - 팀 전·장 : 기·부문 5년 이상 유 경력자 ※ 영어 능통자 우대
생 산 부 문	생산부·생산2부 품질감사 및 자재관리 생산직	0 0	- 팀 전·장 : 5년 이상 제조도예 유 경력자 - 품질감사 및 자재관리 : 3년이상 유 경력자 - 생 산 : 전기·전자·기계 분야 생산 유경험자 우대
연구소		0	- 반도체, 전기, 화학, 학과, 기계 분야 연구 경력자 우대 및 영어 능통자 우대

2.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전형 후 신체검사 → 최종통보

####